십자가복음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0과 1이라는 디지털 기호를 코드로 성경 말씀을 풀어내는 태승철의 오늘의 번제 <하나님 먼저 있음 존재감의 방파제>의 줄거리 :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과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존재감은 이렇게 분명한 먼저와 나중의 순서를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이 순서 하나만 지키면 나는 이 땅을 향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의 센터가 됩니다. 삶의 모든 방면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신 역사가 이어져 나갑니다. 사람들의 모든 불행은 바로 이 명백한 선후의 순서를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지 못함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을 지켜내기 위하여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이 마음 안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거센 물결을 막아낼 방파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있음 존재감의 방파제

(출애굽기 4:10~17)

10.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 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 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15.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16.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 먼저 있음’에 대한 존재감을 ‘세상 나중 있음’에 대한 존재감으로부터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주권자로서 ‘먼저 있음’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반면 내 몸부터 시작해서 오감으로 포착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중 있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세상 모든 것은 있게 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의 순서대로 존재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와 저주에 빠져서 이 순서가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을 먼저 느끼고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을 나중에 느끼거나 아예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있고 세상 모든 만물은 나중에 있게 되었습니다. 명백하고도 단순한 존재의 순서대로 존재감을 느낄 수 있다면 삶의 각 방면은 조화와 균형을 찾게 됩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불행은 존재감의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있음의 존재감이 내 마음에서 완전히 소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의 삶은 질서를 잃어버리고 조화가 깨집니다.

본문은 언뜻 보기에 모세가 믿음이 없어 보입니다. 10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걱정하지 말고 애굽으로 갈 것을 명하시는데 모세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함을 이유로 자신이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 여깁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모세는 입술을 움직여서 내는 순음(脣音) 발음이 서툴러서 말을 매우 느리게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전승일 뿐입니다. 성경은 딱히 모세가 발성기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을 느리게 하거나 어눌하게 했다는 식의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모세에 대해 언급하며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40세 때 무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32장 1~2절을 보면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의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의 단비 같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록으로부터 모세가 딱히 신체적 결함 때문에 말이 어눌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명을 위임하시는 순간에 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함을 이유로 사명을 거부하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모세가 자신에게 느꼈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솜씨를 문제 삼을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발음이나 말주변에 대한 문제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말솜씨가 뛰어난 능변의 사람이라도 마주하는 대상에 따라 말솜씨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앞에서 말할 때와 입사 시험의 면접관 앞에서 말할 때와는 말솜씨가 완전히 다릅니다. 부모 형제 앞에서 열심히 면접시험에서 할 말을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면접관 앞에 서자 예상한 질문이 나왔는데도 가족들 앞에서처럼 말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니다. 대학생이 친구와 담소를 나눌 때 하는 말과 지도 교수 앞에서 꾸중을 들으며 논문을 지도받을 때 하는 말, 또 멋진 이성 앞에서 수줍어하며 조심스럽게 하는 말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다고 한 것은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당시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애굽의 지도자인 바로와의 이해관계에서 정면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에 대한 존재감은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정면충돌하여 극복해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모세는 250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동족애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던 애굽인 감독관을 때려죽인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 동족이라 여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감싸주기는커녕 내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동족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히려 민족을 학대하는 자들의 궁중에 들어가서 호사를 누리던 민족의 배반자쯤으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한다면 바로와의 이해관계에서 정면충돌해야만 합니다. 또한 자기를 민족 배반자로 여기는 250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에서 말로 어떻게 그들을 설득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이러한 모세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또 다시 거부합니다. 모세의 거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론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

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250만의 존재감과 막강한 애굽의 역량을 양손에 쥐고 있는 바로의 존재감이 너무나 강렬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며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들의 존재감에 짜부라질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이것은 마치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이 면접관 앞에 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타고난 발성기관이나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라 마주 보고 말해야 하는 상대방의 존재감이 너무나 크고 무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에게 진노하시며 대책을 세워주십니다.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으로 몰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세는 아직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을 마음에서 지켜내는 하나님과 동행한 경험이 없었습니다. 반면 애굽의 바로와 250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감에 대해서는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이들의 존재감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아셨기에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언자로 삼으십니다.

이러한 관계성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전해주고, 아론은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 집에 있고 아론만 나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 보겠습니다만 모세와 아론은 바로 앞에 함께 나갑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아론에게 말합니다. 바로도 모세가 아론에게 하는 말을 다 듣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16절에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것은 모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론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리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것을 바로가 다 듣습니다. 또 모세가 아론에게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도 듣습니다. 이러한 광경은 참 이상하고도 웃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아론의 참여는 모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론 덕분에 모세는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의 책임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아론에게 전하는 것으로 끝입니다. 아론이 모세

에게 들은 말을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할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은 모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위하여 모세에게 맡기신 일이란 아론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하는 말을 듣고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세의 마음이 맞닿아서 대처할 상황이 아닙니다. 모세는 아론에게만 말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배려를 통해서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아론을 세우신 것입니다. 아론이 전하는 말을 듣고 바로가 반응을 보이고, 아론이 전하는 말을 듣고 250만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을 보입니다. 이들의 존재감은 쓰나미와 같이 모세를 향해 밀려오지만 아론이라는 방파제에서 막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어떤 점을 보시는지를 알려주십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세상 것들은 '나중 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중 있음'의 존재감이 마음을 뚫고 들어와 지배하여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을 지워버리는 것을 가장 염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이 마음에서 지켜지는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 한 사람으로 250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키시는 것과 같은 창조적인 계획과 자발적 뜻을 따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을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보다 마음에서 더 크게 지켜낼 수 있는 단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애굽의 바로나 250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가장 버거워하는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의 대상입니다. 모세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책임감에 짓눌리고 이들의 존재감을 느끼며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아론이라는 방파제를 두십니다. 바로의 존재감이나 250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감이 모세의 마음에 더 이상 직접 닿지 못하도록 차단하신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라고 하십니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는 것은 상대와 대치하고 마주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면 이적이 일어납니다. 모세가 두려워한 대상은 사람입니다. 사람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사람의 존재감을 크게 느끼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다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세상 나중 있음'에 속하는 자들의 존재감

을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보다 먼저 받아들이거나 강하게 받아들인다면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창조적으로 세우신 뜻과 의도와는 상관없는 삶이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먼저 있음’과 ‘세상 나중 있음’이라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순서를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먼저 있음’과 ‘몸이 아픔의 있음’ 중에서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이 되어야 할까요? 당장 괴롭더라도 ‘몸이 아픔의 있음’을 느끼기보다 ‘하나님 먼저 있음’을 앞서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병든 몸에 대해 하나님이 바라시는 태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어제 두 부부가 오셔서 대화를 하던 중에 한 분이 혈압이 높아서 음식을 조심하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십자가 복음적 다이어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 복음에 기반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마음이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무슨 음식이든 맛이 있습니다. 마음이 큰 불행한 일을 겪으면 좋은 음식을 먹어도 돌을 씹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하나님 먼저 있음’에 가닿았을 때 어떤 음식을 먹게 될까요? ‘하나님 먼저 있음’을 존재감으로 느끼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십자가 복음적 다이어트가 됩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다이어트 방법은 다양합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고치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찾기에 앞서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으로 마음을 채우고 그때그때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다이어트가 됩니다. 어떨 때는 기름에 튀긴 돈가스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라면이나 햄버거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채소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김치에 밥만 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된장찌개를 먹을 수도 있고, 소고기를 먹을 수도 있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짜게 먹으면 안 좋다, 달게 먹으면 안 좋다, 밀가루가 안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었던 만나는 결국 밀가루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같이 양에서 나오는 기름진 것들을 먹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생각할 때 음식이라는 ‘세상 나중 있음’이라는 존재감을 먼저 느낍니다. 건강이라는 ‘세상 나중 있음’이라는 존재감을 먼저 느낍니다. 그러면서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에 파묻혀서 건강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먼저 있음’을 느낄 수 있어

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을 먹게 되는 대로 드시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94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형제들보다 총기가 더 하시고 혈압이나 당뇨도 없으십니다. 경상도 분이라 그런지 음식을 무척 짜게 드시는 편인데, 김을 드시는데도 간장을 찻숟가락으로 떠서 뿌려 드십니다. 한편 밴쿠버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은퇴 목사님들이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침 식사로 호텔 뷔페를 모시고 갔는데 한 목사님께서 음식 취향이 참 특이하셨습니다. 짜디짠 베이컨 일곱 조각과 토마토 두 조각을 집어 오셔서 커피와 함께 드시는데, 테이블 위에 있던 설탕 20봉지를 털어 넣으십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걱정하시며 '도대체 음식을 왜 그렇게 드십니까?'라고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분이 100세 넘게 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보다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을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애굽의 바로와 250만 이스라엘 백성을 마주할 것을 생각하고 마음이 그들의 존재감에 짜부라질 것만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불붙는 떨기나무를 통해 나타나시기 전에도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을 먼저 느끼는 죄와 저주가 체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에게 방파제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 아론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방파제가 필요하심을 아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했습니다.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이 쓰나미처럼 쇄도해 들어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방파제가 되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을 당했든지, 어떤 사람을 만났든지 그것은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입니다. 면접관을 마주하든, 애인을 마주하든, 가족을 마주하든 언제 어디서든 눈앞에 있는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인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사건을 먼저 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은 더는 쇄도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방파제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방파제는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방파제를 세웠다 허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한 주권의 센터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나는 이쪽 편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권자이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해 갖고 계시는 주권의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 어지러운 상황이라는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을 먼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뉴스를 보든 무슨 일을 하든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방파제를 세워야 합니다. 십자가 방파제를 통해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이 내 마음을 휩쓰는 것을 막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록 우리가 몇 사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시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아론을 방파제로 삼아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을 지켜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250만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이끌어가십니다. 필요하다면 애굽 같은 나라를 초토화시키시는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믿읍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을 지켜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을 지켜내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주님을 방파제로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라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나라는 '세상 나중 있음'입니다. 나라의 혼란스러움이라는 존재감보다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으로 내 마음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해 갖고 계신 주권의 센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의 센터가 될 때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의 센터 됨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으로 채워져서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나쁜 일이 생기다니, 이렇게 흘러가면 대한민국이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여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의 명단에 있는 자들에 의해 십자

가 복음의 전파가 막히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나 단체나 나라에서 오늘도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들은 거센 파도처럼 우리 마음을 향해 쇄도해 들어올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방파제로 막아서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을 지켜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는 십자가 가족들만이라도 이 시대에 내 가정을 위하여, 내 회사를 위하여, 내 직장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땅에 내려와 창조적으로 뻗어가는 주권의 센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의 방파제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기억함을 통하여 '세상 나중 있음'의 존재감의 파도들이 밀려올 때 능히 막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먼저 있음'의 존재감으로 충만해서 내가 속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권의 센터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